

을지로 119안전센터

Eulji-ro 119 Fire Station

류재은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건축



인터뷰 일자 2011년 3월 4일
장 소 시건축 회의실
참 석 자 류재은 건축사, 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류재은 건축사와는 지난 1월에 만날 예정이었다. 일정상 미루어졌고 이제야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는 바쁜 분으로 국내에 드물다 할 수 있는 50명 내외의 중규모 사무소를 착실히 운영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이였다.

시건축(始建築)의 이름으로 개업한지 19년이란 시간동안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건축사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모범, 그리고 기준이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싶다고 하였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박인수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터뷰를 못하게 되어 아쉬웠는데... 이제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유정훈 :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류재은 : 지난번에는 개인적인 사정이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만에 휴가를 계획해서 다녀왔거든요. 휴가를 미룰 수가 없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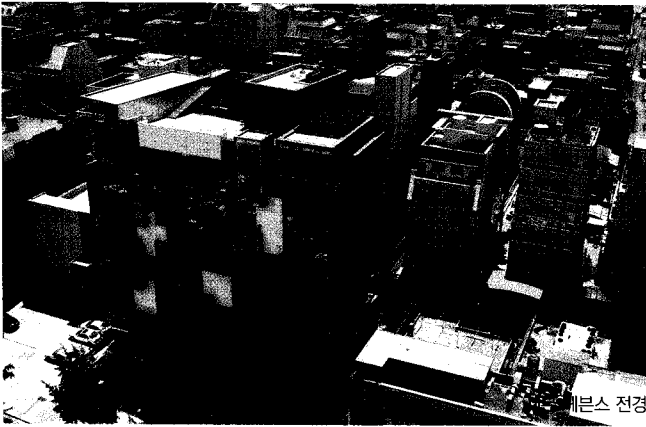
유 : 오늘도 편하신 마음으로 이야기 하시면 저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류 : 감사합니다. 요즘 'H 호텔' 리노베이션이 진행 중이라 회의실이 번잡한 것 사과드립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을 잠깐 소개드릴까 합니다.

박 : 좋습니다. 전에 이러한 경우는 없었지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류 : 우리 시건축에 직원은 50명이 조금 안되고, 건축사 7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

니다. 개업한지는 이제 19년이 됩니다. 그간 이리저리한 일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평창동에 있는 김중영 미술관, 논현동에 있는 세븐스 헤븐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을지로 119센터들을 대표로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공동주택들을 좀 하고 있지요. 김중영 미술관은 평창동에 단독주택 두 개 필지를 모아서 지은 것입니다. 대지가 매우 복잡해서 건물의 배치가 지그재그하고 계단식으로 여러 레벨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개울이 있어서 그 개울을 따라 건물이 배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 건축가협회 특별상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세븐스 헤븐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인데 건축주께서 은퇴하시면서 임대료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서 참 많은 스테디를 하였습니다. 도시적 상황도 생각하였고, 근린생활시설로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도 고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도시에 있는 상가들의 간판이 난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하다'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작은 근생(近生, 근린생활 시설의 줄임말)들을 층층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여 이러한 건물을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박스가 병렬, 사무실, 가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70%정도 지어졌을 때, 모 기업에서 건물을 통째로 빌려버리더군요. 그래서 처음의 의도와는 달라졌지만 그 임대한 기업에서 각 박스들을 나름대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브스 전경

유 : 각 다른 업종끼리 크고 작은 공간을 맞추어 사용한다는 개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쩌면 임대에 우려가 있을 법도 했는데 건축주에게는 차라리 잘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류 : 네. 그 기업이 10년 계약으로 빌려서 임대에 대한 고민은 없어졌지요. 사실 저희도 하나의 박스를 임대해서 쓸 계획을 하였는데, 그 덕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건축주 본인만큼은 작은 박스를 하나 확보해서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작지만 층고가 한 5m 되는 방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실은 임대한 기업에서 전시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구, 주방가구, 인테리어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 : 몇 년도에 지어졌나요?

류 : 한 사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 : 이 건물의 배면은 어떠한가요?

류 : 배면은 좀 더 간단해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단위가 전면보다 큼니다.

박 : 흥미로운 것이, 사실상 기획할 때만해도 임대용 건물이 어떻게 임대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순 없잖아요. 그렇다면 설계하신 것처럼, 각 박스들이 어떠한 업종에 임대될 것이라고 결정하고 진행하긴 좀 어렵지 않았나요? 각 상자들이 크기도 다르고, 또 연계도 쉽지 않고….

유 : 하지만 결국에는 지어진 것을 보고 찾아오지 않을까요? 난 몇 평정도면 되니까 그에 맞는 것을 달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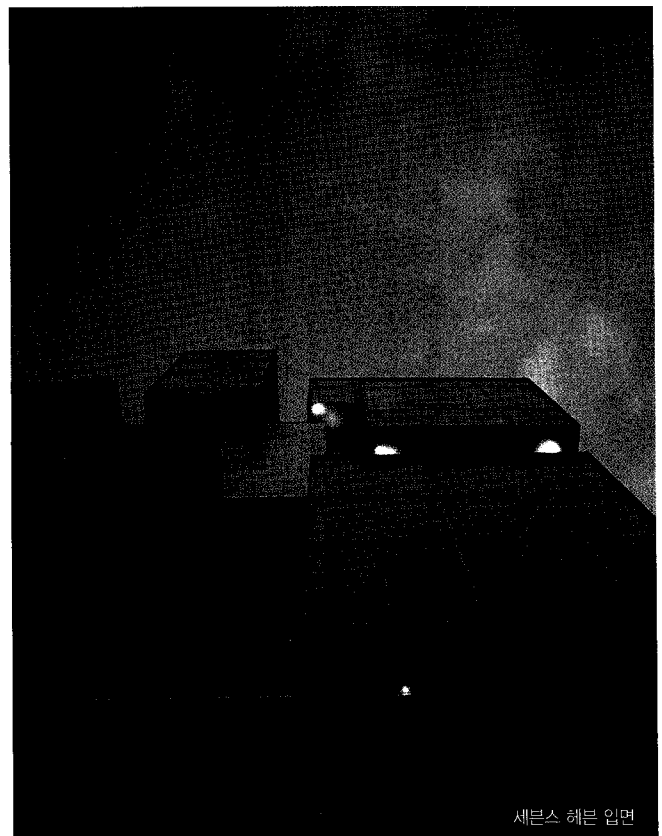
류 : 당시에는 지어지면 임대하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줄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감안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건축주께서 각각 임대하는 것 보다 단번에 임대하는 게 훨씬 편할 것으로 판단하시고, 한 기업에 전부 임대를 하였습니다. 아마 금전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셨겠지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이 건물의 평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 단위로 임대가 될 수 있고, 한 층에서도 나누어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임대 조건이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코어를 중심으로 나뉠 수 있게 하였어요.

유 :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건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한 층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류 : 한 200평정도 됩니다. 오히려 저의 걱정거리는 임대 문제 보다는 공사비였어요. 평당 330만 원 정도로 지어야 했지요. 8개의 시공사가 입찰을 했습니다. 건축주께서 세 곳을, 그리고 제가 다섯 곳의 시공사를 추천 했는데, 건축주께서 데려온 시공사는 모두가 응찰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소개한 다섯 군데가 응찰해서 제일 싼 곳을 뽑지 않고, 최저가에서 두 번째인 4위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주변의 공사비 시세는 평당 300만 원 정도였는데, 건축주께서 10% 더 쓰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승낙해 주셔서 평당 330만원에 시공하였습니다. 층마다 평면이 다르고 발코니가 다 있어서 입주자들이 지상층 같은 느낌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 : 이름이 세브스 헤븐인데, 무슨 뜻인가요?

류 : 세브스 헤븐은 건축주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유대인과 중동의 이슬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곱 개의 천국 중에서도 최상의 천국이 일곱 번째 천국인데, 신들만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또 오래전에 미국에서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건물 이름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른 건축사 분들은 맛있는 이름도 생각하고 하시는데…,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기도 한 **울지로 119센터**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동대문 운동장이 있을 때부터, 이 119센터(소방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대문 디자인 파크가 건설되면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죠.** 전체 부지에서 땅을 조금 잘라내서 소방서에 땅을 준 것인데 보시다시피 4분의 1원의 모양으로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에서 제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건물에서 일할 소방관이었습니다. 외국에 보면 소방관들이 참 멋있잖아요. 영웅이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이 건물의 주인공이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방차를 보면 매우 기능적이고,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도 좀 기능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건물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서울에서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동대문 디



세브스 헤븐 입면

자인 파크 옆에 지어지는 건물이니, 좀 특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옆 건물을 의식하는 것 보다는 소방서 기능의 본질적인 것을 우선 만족하여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지가 삼각형으로 생겨있어서 두 개의 방향성이 생각되었고, 또 경사지이었기에 지형에서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낮은 곳에는 주차를, 높은 곳에는 사무실과 숙소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소방차를 주차하는 곳을 바라보는 높은 곳에 통제실이 있고, 여기에서는 내부 전체를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이곳이 더욱 좋은 것은 상부에 천장을 마련 할 수 있어서 매우 밝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 지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로서 하부에서 사다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었지요. 또 소방호스를 넣어 말리는 공간도 마련되었어요.

유: '소방서' 하면 연상되듯이 소방관들이 파이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나요?

류: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파이프 시설이 필요한지를. 그랬더니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취침하다가 긴급 출동할 때, 발이 빠는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소방관이 "소방관은 절대 뛰면 안 된다. 언제나 천천히 다니라"고 했습니다. 소방관이 성급히 뛰어다니다 보면, 위급상황에 제대로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거죠. 그리고 이 통제실에 대하여 더 말씀 드리자면 이곳이 비행장 관제탑처럼 적은 인원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층부가 소방관의 숙소인데, 대지에서 떠 있는 모습입니다. 디자인 파크 쪽에서 보면 숙소 부분이 주로 보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파크와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론은 소방서는 소방서답게 처리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박: 사진으로 보니, 동대문 디자인 파크에 벌써 완성된 곳이 있군요.

류: 네.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해서 복원한 부분과 또 박물관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소방서도 완성되었고요.

유: 그 일부가 이미 일반에게 공개 되었나요?

류: 작년 10월경부터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인 건물 쪽을 공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 소방서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후 바로 댓글이 붙더라고요. "이렇게 돈들이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 소방서다" 뭐 이런 글도 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건축은 예산이 늘 정확합니다. 소방서에 들어가는 장비와 규모 등이 표준화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이 건물도 일반소방서와 같은 비용으로 지어졌습니다.

박: 그게 얼마정도 인가요?

류: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공공건물들의 단가가 일반 건물보다는 높습니다. 이 건물이 소방서다 보니, 소방관련시설, 숙소, 화장실 등의 시설 때문에 공사비가 좀 더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러니 기준이 좀 높죠. 하지만 서울 시내의 어느 소방서든지 비용 기준은 모두 같습니다. 이 건물이 작년에 건축문화대상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요즈음 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흥은동에 재개발 하는 건물인데요. 기존에 조합에서 생각한 안은 '모자 형태의 배치에 바지저고리 모양의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이었지요. 부지 주변에 흥제천과 북한산 등이 있어 이러한 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대지 내의 고저차가 약 40m정도 납니다. 대단한 경사죠. 당초의 계획안이 심의에서 부결되어 저희에게 다시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안을 수정해달라는 것이었죠. 사실 좀 살펴보니 조감도와 배치도가 서로 달랐어요. 조감도는 건물들을 매우 작게 그려 공간들이 넉넉하게 보이지만, 배치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통경축이 살아나도록 선형 배치를 했고 판상형 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산 통경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 그런데 요즈음에는 판상형이 좀 지탄받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류: 그렇죠. 하지만 제 생각은 케이스 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상형이 다 나쁘지만도 또 좋지만도 않죠. 경우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지는 판상형에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 판상형으로도 다양한 연출을 하셨군요.

류: 공원과 연계하고, 레벨을 좀 다채롭게 하고 건물도 요철을 두어 공간을 만들어 내었죠. 주 가로와도 대응하도록 가로변 매스의 저층 두께 층은 상가로 구성했어요. 이 건물은 가로변에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좀 길지요. 보통 심의에서는 유닛을 5개 이상 정도 이어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매스에서는 유닛이 20여 개나 붙어 있습니다.

유: 심의를 통과 하였나요?

류: 네.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유럽의 도시형 주택을 보면 그렇게 긴 것들이 많이 보이죠.

유: 그럼 이 안을 사례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는 것 일까요?

류: 그럴 것입니다. 이 안이 그러한 최초 안이니까요. 대신에 저희는 건물의 중간부분을 좀 뚫었습니다. 구멍을 통해 저 먼 쪽을 조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단지의 스케일로 보아 이 아파트가 건물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만드는 산지락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 지금 이 안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류: 사업승인 준비단계입니다.

박: 건물의 디자인을 보면 유닛마다 들쭉날쭉한 형태로 다양한데요. 이런 것을 디자인 하시는데 면적 등의 문제는 없었나요?

류: 사실 입주민 입장에서 '옆집은 발코니가 있는데 나는 왜 없나?' 뭐 이런 식 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만큼 비용으로 싸게 해서 공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차별성 등이 있어야 디자인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차별화를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 만일 요철부가 발코니, 즉 서비스 면적으로 만들어 내신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가격 차이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비스 면적은 분양가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비스 면적이란 개념이 입주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현행 제도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A'타입인 경우, 하나는 서비스면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면적이 없을 때, 전용면적이나 분양면적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가격 차이를 만들어 내기가 참 어렵게 되죠. 어쨌든 이제 사업승인 단계이니, 실현될 수 있겠네요.

류 : 네. 이 건물은 시작할 때부터 시공사가 정해져 있어서 사업승인 후 바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후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과 청담동 주상복합을 더 보여 주었으나, 본지 편집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박 :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작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인터뷰를 시작한 취지 및 동기는 건물을 통해서 그 건물을 만든 사람과 그의 사무실 조직을 함께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잡지들에 실리는 좋은 인터뷰들이 많이 있지만, 대개 건축론에 치우치거나, 인물론에 치우친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을 너무 어렵게 만든 경향이 생겼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건축의 상황은 간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뷰는 적절한 선에서 수위조절을 잘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 : 이 시리즈를 이제 끝내려 합니다. 류 건축사님께서 대미를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잡지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들었습니다. 건축사라면 거의 잡지를 받아 보시기 때문이죠. 특히 저희 인터뷰가 흥미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성장 과정상에 겪었던 노하우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는다고나 할까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박 :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서 50명의 직원과 7명의 건축사, 그리고 19년의 업무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힘든 과정을 여러 차례 겪지 않으셨을까 궁금합니다.

류 : 저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수학 후, 7년 정도 일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아키텐에서 2년 근무를 하고, 동업을 제의 받아 개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키텐의 직원 몇 명이 저와 함께 퇴사를 하여 같이 팀을 이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 정도 동업을 하다가 개업을 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박 :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유학을 가시고, 일 하시고 또 돌아오시고 그러시는데 류 건축사님은 어떤 계기들이 있으셨나요?

류 : 저는 대학교를 77년도에 졸업하였고 공병대 입대해서 3년 근무하고, 제대하고 1년 정도 김 원 선생이 운영하시는 '광장'건축에서 일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 유학을 2년간 하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일반적인 설계사무실에서 7년 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더 이상 있다면, 미국사람이 되거나 한국사람이 되거나를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니다. 영주권 관련 문제들이었죠. 그리고 제가 워낙에 들어 올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89년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 끝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박 : 개인 사무실을 차리신 보다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좀 전의 말씀을 들어보면, 개인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주변의 권유에 의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또 한 가지는 건축설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사무실을 갖고 싶어 하는데, 막상 실현시키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류 건축사님은 어떠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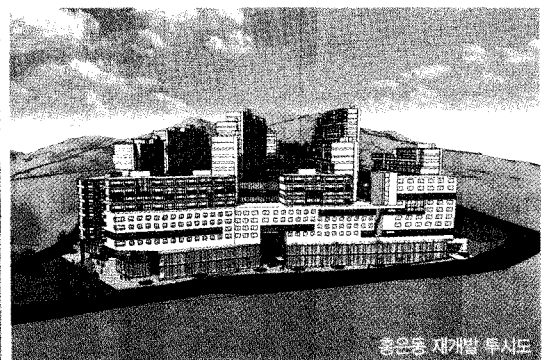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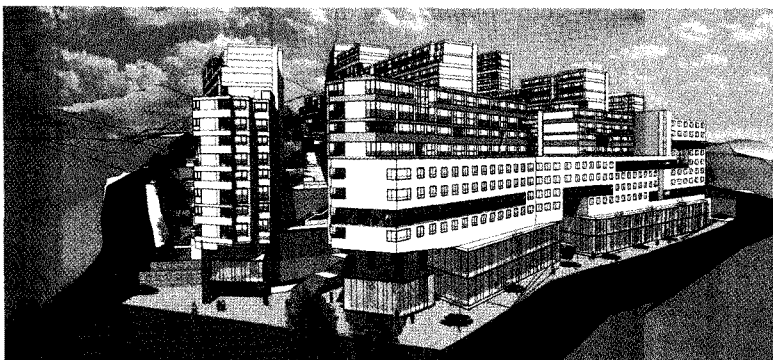
류 : 하지만 반대로 쉽게 차리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저의 학교 동기들은 모두 개업을 했다군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저는 그렇게 급히 개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좀 더 성숙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마침 동업을 제안 받았고, 굳이 거절하기도 어려워 어느 정도 덩달아 시작한 편입니다. 동업을 제안하신 분은 이미 설계사무실을 운영하시던 분이어서 비교적 용이하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저희 직원들이 어느덧 거의 모두가 20년 정도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 : 그러시면 동업을 하시다가 왜 또 새로이 개업을 하셨나요?

류 : 동업을 하다 보니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인데, 사실 제가 너무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장파한 이야기긴 한데, 제가 나왔다고보다는 쫓겨난 것처럼 되었습니다. 별로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단히 화가 나셨지요. 그리고는 제가 나오게 되었죠. 또 막상 나간다고 하니 잡기도 하셨는데...

박 : 짐작리진 물이었군요. 그렇게 나오실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는 상황인데,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류 : 네. 당시 그 사무실에는 제가 데리고 들어간 직원과 원래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사가 나뉘게 된



홍은동 재개발 후시도

것입니다. 마치 분사(分社)같은 거죠. 저희는 한 7명 정도 되었습니다.

박 : 7명.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인원일 텐데요.

류 : 네. 그래도 저희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하나 설계를 하고 지으면, 또 다른 분들이 찾아주시곤 했죠.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넘겨지는 않았지만, 운영을 할 수는 있었어요.

유 : 오늘 보여주신 것이 대개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인데, 개업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즉 김종영 미술관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류 : 주택관련 프로젝트들을 꽤 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단독주택을 한 70개 정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개인적 취향과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더 고생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건축주의 관심이 좀 덜하지만 주택은 달라요. 같은 건축주의 주택과 사육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육은 설명 드리고 다 지어지면, "뭐, 잘했네..."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하시는데 비해 개인주택의 경우는 매우 꼼꼼하게 챙기시더군요. 자는데 냉장고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매우 세밀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세세한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매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좀 차이가 커요. 열심히 해서 단독주택 하나를 완성하고 나면, 건축주께 좋은 일했다고 생각되고 또 자부심도 생기기도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의미가 훨씬 크지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사회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 훨씬 보람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박 : 혹시 류 건축사님께서 뭔가 선호하거나 특기가 되는 유형의 건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던가...

류 : 제 특기는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골치 아픈 건물을 하는 것이 특기가 되겠습니다.(웃음) 그러나 신경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구요. 그리고 주택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 두세 채 이상씩 하고 있으니 가장 많이 설계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박 : 사무실이 19년 동안 지내 오면서 굴곡도 있고, 성장도 하고 했을 텐데요.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있었을까요?

유 : 예를 들면 IMF외환위기 같은 것도 있고요.

류 : 비교적 꾸준히 성장한 편이에요. 물론 중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근 20년 동안 저와 같이 일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있어서 함께 실력이 자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저의 20년 전은 실력이나 지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그러니 함께 자라왔다고 할 수 있지요. 규모는 저뿐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 만큼 그들 주변으로 팀 인원을 더 필요로 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지 뭐 특별한 인원을 늘리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스튜디오 타입 사무실을 하려면, 15명이상은 안된다고 인원을 한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나 뿐 아니라 간부들도 그대로 있어야 하고, 결국 모든 게 정지되어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조금씩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박 : 공감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변곡점이 될 만한 상황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류 : 세븐스 해브 건물이 저희에게 일종의 변곡점을 이룬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개를 통하여 저희가 알려지는 편인데요. 세븐스 해브 건물을 통해 외부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일들도 좀 생기게 되었죠.

박 : 혹시 IMF 외환위기 때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류 : 당시는 제가 세종대에서 교수직을 할 때입니다. 제가 97년에 세종대 건축학과를 창과하고, 학과장을 했었죠. 그런데 몇 년 해보니, 학교를 더 못 하겠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가장 미안했어요. 간혹 수업 중에도 전화를 받아야하고 또 수업 끝나고도 학생들과 길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보직을 맡으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박 : 19년간 사무실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류 : 사실 뭐 항상 어렵죠. 돈 문제는 늘 아슬아슬하게 갑니다. 적금 부었던 거 찾는 달에 바로 그 적금으로 월급을 주게 된다던지... 참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 성장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박 : 시건축의 직원 선발 기준이 있나요? 만일 기준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그간 뽑을 때 주로 보신 건 어떤 면인가요?

류 : 올해에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뽑았어요.

유 :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류 : 포트폴리오도 보고, 말도 시켜보고, 자기표현도 해보고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저희는 공채처럼 공고하고 서류전형하고, 포트폴리오 보고 인터뷰하면서 지원자가 스스로 많이 이야기 하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 워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직원들이 기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정체되면 안 되거든요.

박 : 지금까지 계속 그런 사람들을 뽑아오셨나요?

류 : 아닙니다. 금년부터 그런 것이고, 그 전까지는 소위 '잘한다'는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게 훨씬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 :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검증하고 있는 중이시군요.

류 : 그렇습니다. 지금은 간부직원만 열심히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기어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는 전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유 : 신문에서 보았는데,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다른 분야는 다 진화하는데, 왜 교사(教師)는 진화하지 않느냐?”고 하였답니다. 같은 이야기로 “건축은 왜 진화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류 : 네, 진화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변화를 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 : 사무실 직원들은 들어오면 계속 잘 남아 있나요?

류 : 좋은 직원들을 뽑으니 자주 유학을 가서 또 결원이 생기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 :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류 : 네,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유 : 19년이 되었다는데 오래 일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떤가요? 파트너 제도를 시행하고 계신가요?

류 : 작년부터 파트너 제도의 첫 단계를 시작하였으며, 단계를 거치며 계속 합리적인 모델을 찾으려 합니다. 잘 되리라 봅니다. 작품은 공동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급이 저까지 6명이 있는데 각자의 담당 프로젝트를 책임 있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 : 각자의 프로젝트라고 하시면, 개인이 수주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류 : 그런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 들어온 일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 : 주신 명함에서 소장으로 직책을 쓰셨는데, 시간축에 소장은 류 건축사님 혼자 계신가요?

류 : 소장은 저하고 한철수 소장, 둘이 있고, 부소장이 네 명 있는데 부소장 네 명은 다음 달에 소장으로 승진합니다.

유 : 혹시 대표나 사장으로 불리시고 심진 않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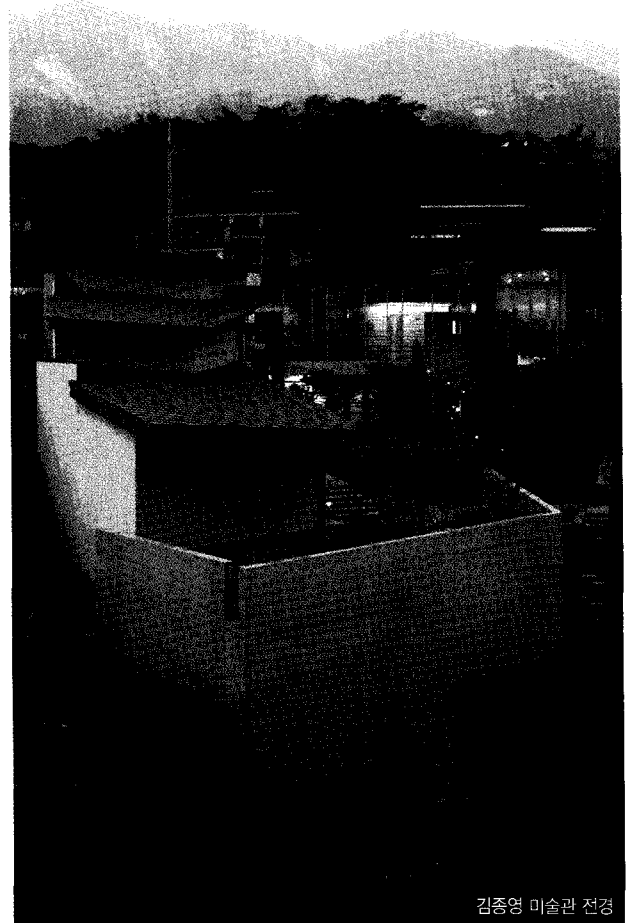
류 :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박 : 명함에 한국건축사라는 글이 없는데요?

류 : 미국 면허도 있고 한국 면허도 있습니다. 명함이 너무 길어 질까봐 명함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건축사 자격은 세 번 시험 봐서 붙었습니다.

유 : 80년대 말에 귀국하셔서 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류 : 전 그런 건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군대까지 갔다 왔고, 교포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건축사시험을 세 번 만에 붙었는데, 당시 주변에서 “간단한 문제집 한 번만 보고 시험 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책 대충보고 가서 시험을 쳤는데, 법규 문제가 너무 어려웠지요. 문제가 막 꼬여 있어서 무슨 말인지도 알기 어려



김종영 미술관 전경

웠어요, 그래서 느껴요. 대단히 영리해야 살 수 있겠구나... 제가 영리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 : 아키텐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류 : 아키텐은 당시 김우성 사장님이 계셨고, 네 개의 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1소장을 하고 있었죠. 당시 박 훈 소장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해운대 현상설계하고, 가양지구 아파트 현상 설계 등을 했고요, 운이 좋게도 한 세 개 정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박 : 지금까지 일하면서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류 : 사실 제게 일을 주신 모든 분들이 은인이시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일 주신 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의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었는데, 좀 넓은 빌라였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건축주 분의 형님, 지인들이 일을 계속 연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제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영미술관의 건축주 분도 매우 감사한 분이죠. 제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븐스 헤븐 건축주 분도 거의 'NO' 를 안 하셨어요. 그 분은 저희가 계속 안을 발전시키고 있을 때, “다 좋으니까 이제 그만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박 : 류 건축사님은 주로 민간 시장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공공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계약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좀 어려운 문제는 없으셨나요?

류 : 네, 민간 시장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당선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 시장에서 처음에는 경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현상실제 참여를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선되는 것들을 유심히 봤죠. 투시도는 어디서, 어떻게 그리는지, 패널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당사가 가장 비효율적인 운영을 할 때입니다. 당선율이 참 낮았어요. 심사위원들의 마음도 못 읽어 내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당선되는 것이 결국 실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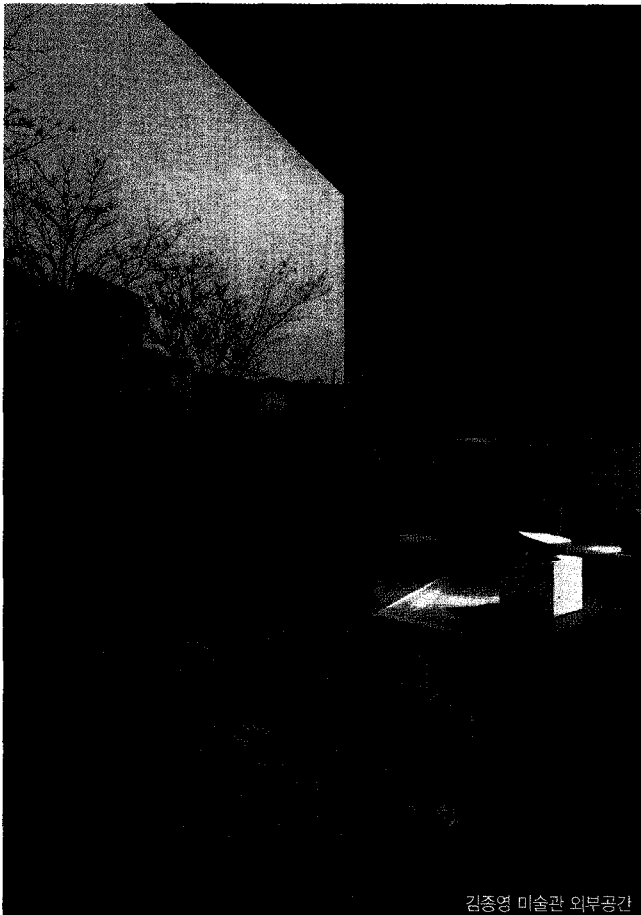
박 : 그래서 결국 지금은 공공 현상에서도 형식적인 부분에서 밀리지는 않게 되신 거죠?

류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무슨 현상을 참여 할까를 좀 나누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 : 그런데 제가 좀 문제시 하고 싶은 것이, 국내의 공공 현상이 제출물의 테크닉과 형식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듯해서요.

류 : 사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설계한 사람이 설명할 기회도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현상 프로젝트의 용역비가 5억 원인데, 5개 회사가 1억 정도씩을 투입해서 현상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참 년센스죠. 1,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던지, 제출물을 간소화 하던지, 설계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게 하던지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 그럼 말 나온 김에, 현업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중영 미술관 외부공간

유 : 고치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라고 할까요.

류 : 최근에 공동주택을 많이 하다 보니, 공동주택 관련 법규는 좀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박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류 : 서울시의 경우, 용적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220% 안팎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240%, 250%씩 주어야 하고, 역세권은 400%, 500%씩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거가 결국 아파트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데, 300, 400, 500%씩 용적률을 주다 보면, 궁극적으로 40층, 50층까지 층수가 올라가야 해요. 서울시에서 그런 아파트를 짓지 않으려면, 인동간격, 남향선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또 형식도 연도형 등의 다양한 아파트가 개발되어야 하죠. 아무튼 공동주택을 지금 상황으로 끌고 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의 같은 곳에 가보면, 심의위원분들도 좀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축계에서 아파트를 보는 시각이 좀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 :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정작 시민 사회에서 큰 움직임이나 남향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경제논리가 앞서고, 나는 이익을 추구할 터이니 남들은 바르게 하길 바라다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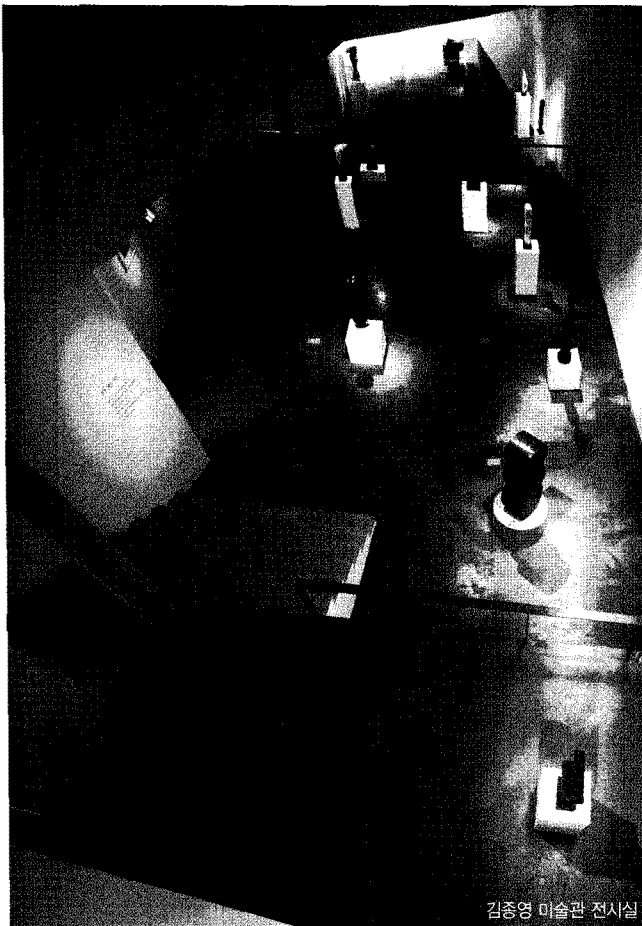
류 : 물론 그렇죠. 하지만 사회에서 남향을 선호할 때 건축계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실증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대항방향 이격 거리등도 안 지켜도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심의위원들조차도 다양한 신 개념의 배치를 요구하면서도 모든 세대가 100% 남향이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이 건축계의 공통적인 문제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용적률과 건축의 형태 등 모든 것이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지혜롭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 :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형태를 법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선분양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만일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면, 즉, 후분양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합니다. 잘못 만들면 안 팔릴 테니까요. 그런데 선분양을 하니, 즉,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팔다보니,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키게끔 해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데, 류 건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류 : 네, 그것도 반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건축계의 문제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실행하기 비교적 쉬우니까요. 그리고 일반에서 보면 주택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많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몇 층을 했다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작성이 풀리니까요. 서민들은 고급 추상복합을 비난하면서도, 내심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박 : 건축사들의 문제는 없을까요? 건축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류 : 건축사들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꿀목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건축사들이 오래된 꿀목길에 향수를 갖고 찬양 합니다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다면 충분히 봐줄 수 있어요. 50층 올라가지 않고도 환경과 사업성이 충족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할



김중영 미술관 전시실

니다. 현재적인 의미에서 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고민해야죠. 사실 차량, 도시 스케일 등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는 그런 길들이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만 할뿐이 아니고, 새로이 재편되는 도시나 주거단지에서는 “골목길” 가치를 간직한 현 시대의 현실적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현적인 대안을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가 일부 생각이 앞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잘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 시장 정책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이럴 때 건축계에서 좀 더 잘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일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고층이 좋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좀 더 복합적인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공급 우선이라,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잘 해 보고 싶어도 법규라는 매우 단단한 가림막이 있고, 그런 단단한 가림막은 선분양, 즉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하게 만드는 정책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가 아닌가 하거든요. 저는 사실 추측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신 분은 없었거든요.

류: 사실 서울시에서는 뭐가 필요하지도 않고 싶어 합니다.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려 하고 있어요.

유: 그러니까 류 건축사님 말씀은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런 일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결국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겠고 따라서 실무하시는 건축사들이 이

일을 주도해가야 할 것으로 이제는 생각합니다.

류: 그런데 사실,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중간 실무 분야 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분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좀 더 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사가 싸게 하라고 했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넘겨 버리고 있다고 봅니다. 중간층이 얼마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까.

박: 이제는 다시 이야기 돌려 사무실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명함에서 보니 시건축(始建築)인데요, 이름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류: 시작(始作)한다는 뜻에서 ‘시’자를 썼습니다. 시자가 좋은 뜻이 많아요. ‘비로소’도 있고... 한자는 다르지만 시간(時)의 뜻도 있지 않습니까?

유: 영문으로는 ‘SEE’로 쓰고 계신데요.

류: 본대(視)는 뜻도 있기 때문이죠.

박: 시건축이 회사 조직으로 볼 때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까요?

류: 저희는 인테리어 팀이 있어요. 8명 정도 되며 실내 디자인과, 건축과 출신이 반반입니다. 저희가 주택설계를 많이 하다 보니, 안과 밖의 개념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유: 인테리어 소품까지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등록도 하시면 좋겠어요.

류: 네, 지금 호텔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사무실 입구에 1:1 mock-up 을 만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의장등록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별도로 사서 붙이지 않잖아요. 결국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니까요, 주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 그렇죠, 잘 지었는데 인테리어의 조그만 부분 때문에 맘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 전등이나 스위치 같은 것도 그렇죠.

류: 주택에선 건축주들이 엄청 까다롭게 보시거든요.

박: 말씀 들어 보니, 인테리어 팀을 갖고 있으신 이유가 결국 민간 시장에서 주택 등으로 성장해 오신 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무실은 안 밖의 연계 개념이 투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공공 분야에서 성장한 사무실들은 일을 모두 나누어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관계로 질러나가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이 건축물의 완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보입니다.

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설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거든요. 개인 입주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문제가 될 곳은 없을까?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와 함께 일해 보면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건설사 인테리어 팀이 오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 크기가 어떻고 뭐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거든요.

박 : 오늘 느낀 것이, 류 건축사님처럼, 민간 시장에서 안 밖의 경계가 없이 일을 하다가 공공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보다 건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2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 일하는 방식이 약간씩이나마 다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 : 다시 119센터로 돌아가서 여쭙겠는데요, 이 건물에서도 내부를 전부 일일이 챙기셨는지요? 감리를 하셨나요?

류 : 아닙니다. 몇 가지의 색상들은 우리가 지정했지만, 아쉬움이 많지요. 공공 발주라서 감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 이것이 어떻게 발주된 것인가요?

류 : 소방서는 서울시 경관 건축가 중에서 가격입찰을 하여 제가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 기준 단가에 근거하여 제출된 입찰 금액 중 평균에 제일 가까운 운이 좋게 낙찰 된 것이죠. 계약 설계비는 4천만 원인데 실행 설계비는 짐작 가시겠지만 아주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감리는 동대문 디자인 파크를 감리하는 회사에서 했는데, 디테일이나 인테리어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박 : 이 건물을 입찰하는 전후에 나온 지침서 내용 중에 뭔가 좀 기억해 두신 내용이 있었나요? 예컨대, 이런 것이 참 좋았다. 다른 발주에도 쓰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류 : 설계를 위한 지침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 : 그럼 그냥 멋진 소방서를 지어달라는 것이었나요?

박 : 아님 창의적인 소방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나요?

류 :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소방서가 있었고, 동대문 디자인 파크 옆에 새로 지어지는 것이라는 것과 소방서에서 내놓은 소방에 관련된 아주 기술적인 내용만 있었을 뿐 건축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 : 그렇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었겠네요.

류 : 공공프로젝트를 잘 아시겠지만, 제출해야 되는 일이 사실 상당해요. 요구하는 도면이 매우 많지요.

유 : 진행과정에서 발주처와는 주로 회의를 통하여 내용들이 정해졌을 텐데요, 제안하시는 내용들이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나요?

류 :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소방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도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체로 좋았습니다.

유 : 혹시 이 건물에 대해 사후 평가를 청취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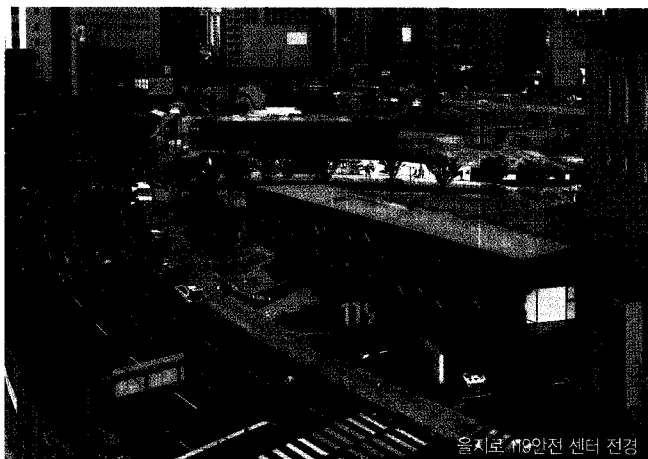
류 : 네. 소방관들에게는 참 좋은 건물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어느 분은 호텔 같다고도 하시며 좋아합니다. 타 지역 소방서장께서는 앞으로 소방서 지을 때 이 건물을 꼭 견학을 시키고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 : 서울시에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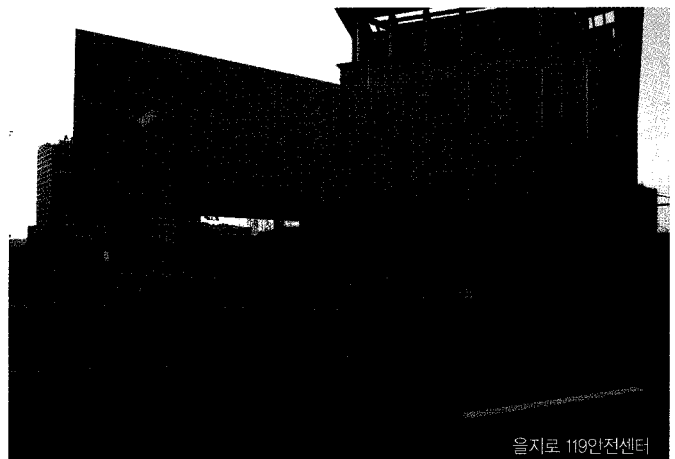
류 : 그렇죠.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의치는데,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대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란 측면보다는 소방서로 기능도 충족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다른 건축사들도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해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땅에 맞추어 만들어 낸 것인데, 억지로 조형을 하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유 : 이제 인터뷰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건축을 처음 생각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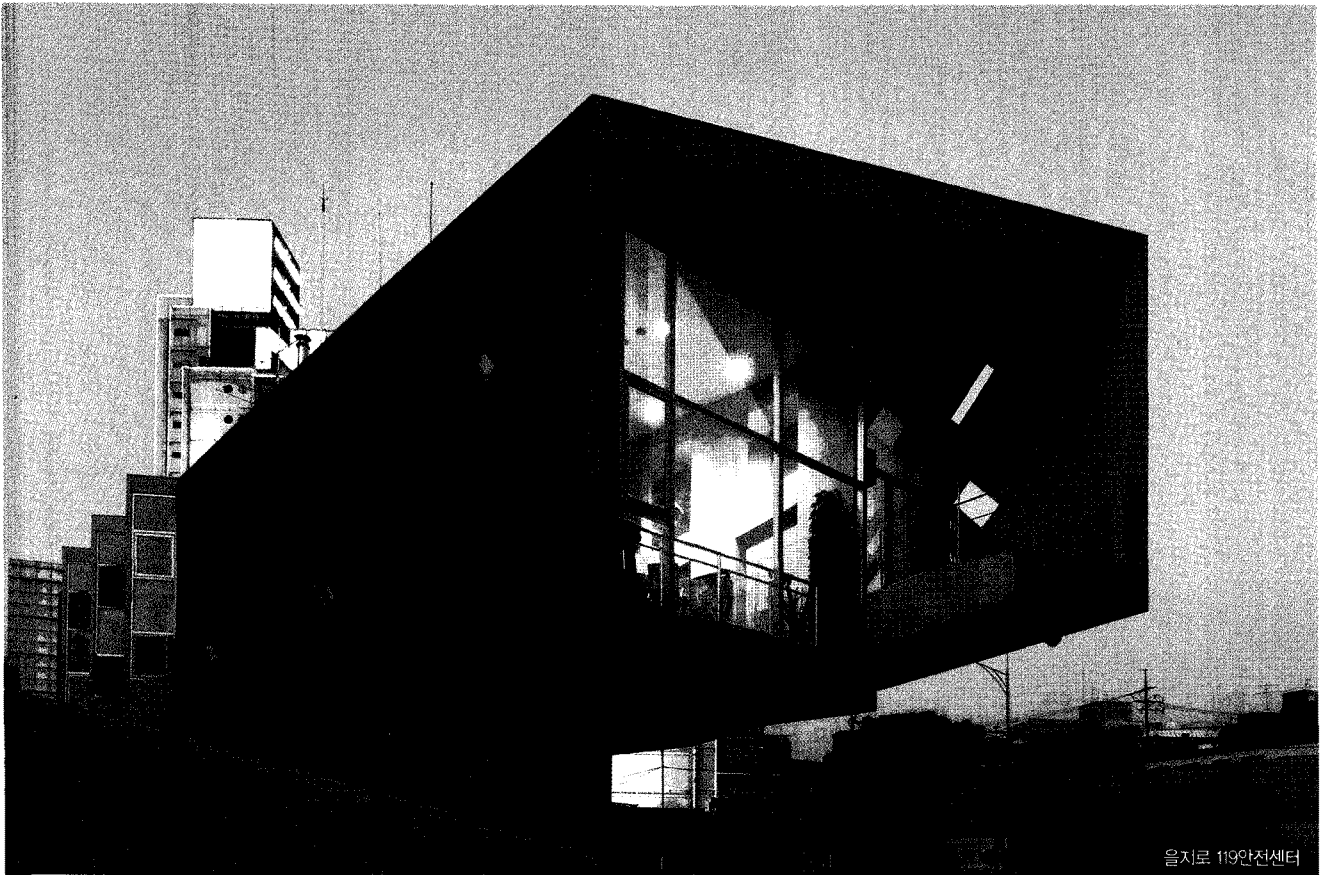
류 :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이나 만드는 것을 좋아 했지요. 건축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조선공학과를 갈까 했었는데, 재수를 하고서 건축학과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선보다는 건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배는 여럿이 참여하여 기업 같은 곳에서 만드는 것이고, 또 큰 배는 그리 많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건축은 소규모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많은 수의 건설이 가능하니 훨씬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을지로 119안전 센터 전경



을지로 119안전센터



을지로 119안전센터

박: 향후 계획이나, 비전 같은 것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류: 저희 사무실이 건축사무실의 일반적 형태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 건축하는 분들하고 친하기도 하지만, 무슨 그룹이니 하면서 함께 하진 못했거든요. 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건축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외국의 어떤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규모가 국내에서는 드문 중규모 사무소라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운영 하냐고 종종 묻긴 하지만 그러기에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고 싶어요. 큰 사무실에 밀리지 않고, 작은 사무실처럼 체력이 달리지 않는 좋은 사무실을 만들어 보고 싶지요. 우리 같은 중규모 사무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사무실에게는 자극이 되고, 소형 사무실 보다는 효율이 높지요. 회사가 너무 작으면 생각이 한정되어 건축도 한정되는 것 같습니

다. 외국에는 중규모 사무실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중규모 사무소로서 역할을 잘하는 회사로 키우고 싶습니다.

박: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 제가 좀 재미있는 말씀을 좀 더 드렸어야 했는데...

유: 충분히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축과 알찬 사무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